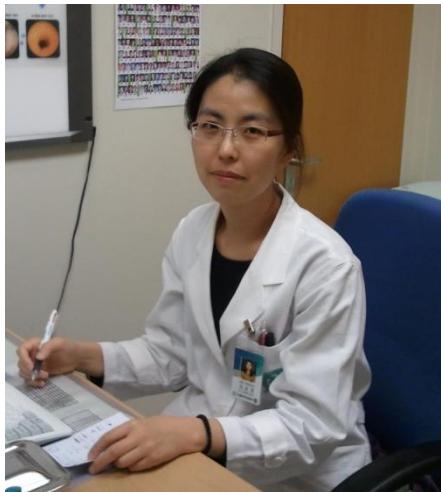


알레르기 전임의를 시작하며

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전임의사

김윤정



저는 이제 막 알레르기학 문턱에 발을 들여 놓은 새내기 알레르기 전임의입니다. 글재주 없는 제게 알레르기학을 시작하면서 느낀 바들을 얘기해달라는 원고 제의가 왔을 때, 선배 선생님들께서 관심두어 보시는 소식지에 제 글을 싣는 것이 면접 시험 보는 것처럼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짧은 의사들과의 소통을 원하시는 선배 선생님들의 배려에 부응하여 솔직 담백하게 제 짧은 글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자넨 알레르기를 왜 택했나?'

지난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의 고마운 관심이 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전문의 수 부족과 일반인에겐 아직 부족한 인식이 평생 학문으로서 알레르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염려도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전공의 시절, 임상에서 환자들을 만나 보면 환경 변화에 따른 알레르기 관련 질환은 분명히 증가되어 가는데 문젯거리를 들고 오는 환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바탕이나 인식이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저부터 부족했던 탓에 내가 알아야 방향 제시를 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병을 앓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시의 적절하게 발견하고 질병으로 진행되는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것,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법'에 관심을 갖는 현시대에 알레르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레르기학이 관여하는 영역은 무궁무진하여 충분히 매력있는 학문이지만, 반면에 그 방향성을 잃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영역을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고 함께 고민할 기회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자가 드문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접근법과 치료를 위한 의학적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알레르기학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환자를 놓치게 된다.**” 이제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제게 알레르기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교수님께서 힘주어 하신 말씀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실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는 선택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환자들이 많으며, 의사들 사이에서도 알레르기 영역의 범위를 가늠하지 못해 환자와의 연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알레르기학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했던 터라, 몇 주간의 수련 과정이 지났지만,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만날 때면 매일 같이 새로운 지식의 필요성을, 저 자신의 작은 모습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에 있는 지식을 실전에 능숙하게 적용하는 것도 의사의 몫이고, 더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알레르기에 관해서는 전공을 택한 의사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는 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기에 어느덧 의무감도 생겼습니다.

의학을 접한 지 십여 년, 다른 어떤 일에 몰두했다면 소위 ‘달인’의 경지에도 오를 법한 시기이지만 의학도가 된 이후에는 그 가늠할 수 없는 깊이를 알기에 어느 순간에도 ‘내가 좀 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하지만,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환들에게 속 시원한 설명 한 번쯤 해 주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길이 다른 길보다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어렵잖이 해봅니다. 병원 몇 군데를 들렀지만 증상 치료하는 약만 썼을 뿐 원인도 못 찾고 큰 병은 아닌 것 같아 주목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에게 속 시원히 설명 해주는 청량제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소박하고도 쉽지 않은 저의 꿈입니다.